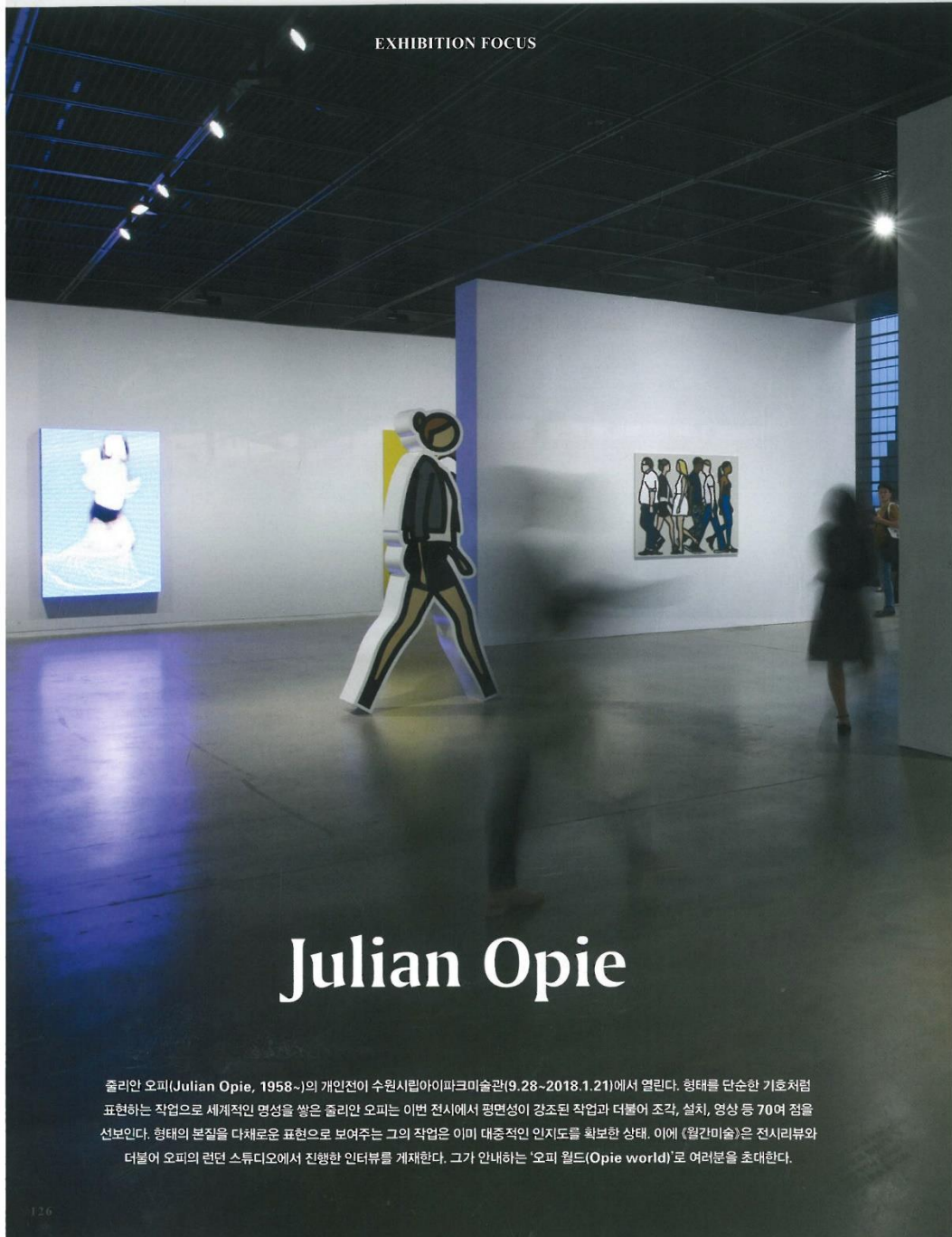


단순화한 고독

December, 2017 | 황석권 수석기자

page 1 of 6



EXHIBITION FOCUS

Julian Opie

줄리안 오피(Julian Opie, 1958~)의 개인전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9.28~2018.1.21)에서 열린다. 형태를 단순한 기호처럼 표현하는 작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줄리안 오피는 이번 전시에서 평면성이 강조된 작업과 더불어 조각, 설치, 영상 등 70여 점을 선보인다. 형태의 본질을 다채로운 표현으로 보여주는 그의 작업은 이미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 이에 《월간미술》은 전시리뷰와 더불어 오피의 런던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게재한다. 그가 안내하는 '오피 월드(Opie world)'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사진 박홍순

제2전시실 관객 (Bobby)(사진 오른쪽 앞)
알루미늄에 페인트 228.5×100×36cm 2016

단순화한 고독

황석권 | 수석기자

2007년 바젤아트페어에서 줄리안 오피는 주목받는 인기 작가였다. 수많은 갤러리가 즐비한 전시장 부스의 벽면도 모자라 바닥까지 놓인 그의 작업을 피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기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영향력, 특히 시장에서의 뜨거운 반응은 식을 줄 모른다. 줄리안 오피가 누구인가? 1958년 런던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미술의 '신화'로 불리는 yBa의 고향과도 같은 골드스미스를 졸업하고(1983) 쿤스트페어라인(Kunstverein), 헤이워드갤러리(Hayward Gallery), K21 등과 같은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도쿠멘타 같은 미술 빅 이벤트에 출품한 세계적인 작가다. 개념미술의 거장이자 yBa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마이클 크레이그-마틴(Michael Craig-Martin, 1941-)을 스승으로 둔 그는 이른바 영국 팝아트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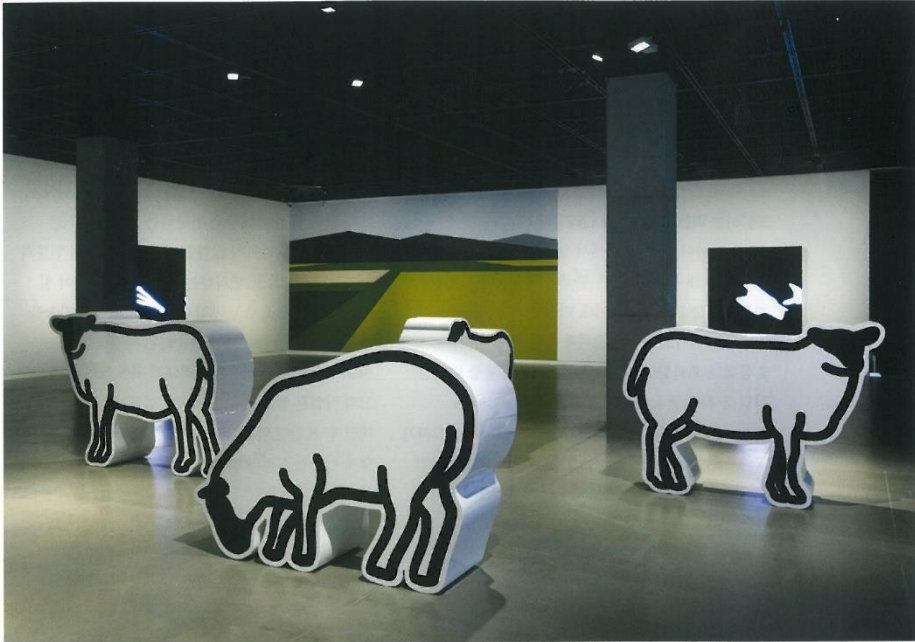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줄리안 오피는 대중적 인지도와 더불어 미술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작가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표현은 평면, 설치, 영상 등을

통해 미니멀리즘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의 작업은 표현의 방법만큼이나 무한 복제를 연상시킬 정도로 증식(multiplication)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의 작품을 만나는 장소는 비단 화이트 큐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방문하는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재 등과 같은 불품으로 확장된 것 또한 결코 어색하지 않다. 그렇지만 형태가 단순하다고 해서 그의 작업이 단순한 내용은 아니다. 도시에서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 타인에 대한 배타성, 속도의 전쟁 같은 복잡다단한 감정을 극단화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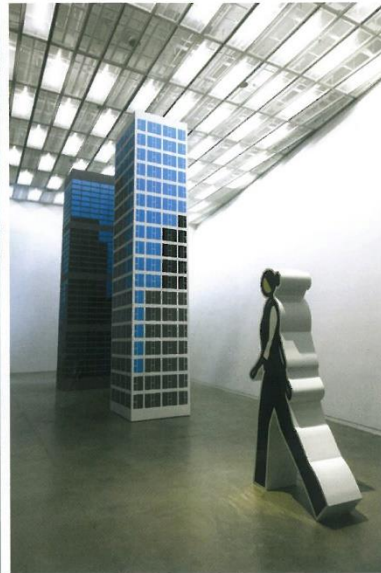
그의 작업은 그간 한국 관람객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개인전(국제갤러리, 2009, 2014)은 물론 광주(Festival O! Gwangju Media Art, 2012), 국립현대미술관(바벨 2002전, 2002), 이용노미술관(Text&Human전, 2012) 등에서 열린 그룹전에서도 오피의 작업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줄리안 오피의 작업이 한국 관람객에게 더 친숙한 이유는 광고와 공공미술, 대중매체를 통해



〈Delphine. 1〉(사진 맨 앞)
레진에 페인트 184×109×
144cm 2013
3D 스캐너로 인물의 형상을
만든 후 손으로 채색한 두상
조각. 전통 인물화에서 사용
한 3단계 명암법을 현대 인
물조각에 적용한 작품으로
얼굴에 드리우는 빛과 그림
자에 따라 드러나는 인물의
캐릭터를 그렸다



위 <Sheep 3>(부분) 알루미늄에 인료 128×155×47cm(각, 총5점) 2015
 아래 왼쪽 <Imogen Walking> (사진 위) 양면LED 196×112×15cm 2016
 <Corey Walking> 양면LED 196×112×15cm 2016
 아래 오른쪽 <Danielle>(인물상) 알루미늄의 자동차페인트 219×117.92×36cm 2016
 인물의 발-조각의 아래 부분은 공중에 떠 있는데, 이 인상 조각은 건드리기만 해도 앞뒤로 움직이지만 한 다리 당 20kg정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Towers. 2> 나무에 비닐과 채색 가변설치 7.6m(높이) 2017
 올해 수원에서 선보인 타워 중 가장 높은 것이 760cm인데, 내년 멜버른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15m가 넘는 타워를 전시할 예정이다



늘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이 등장하는 모 카드회사의 광고가 전파를 탔고,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구 대우센터) 벽면에 그의 작품이 상영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저명도를 갖고 있는 그가 국내 국공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보행하는 이들의 에너지를 간파하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열리는 <줄리안 오피전>(9.28~2018.1.21)은 한국의 국공립미술관에서 처음 열리는 그의 개인전이다. 미술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줄리안 오피의 작업 70여 점이 출품됐다.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작업 중 특히 한국의 일상을 표현한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2014) 연작과 <Tower 2>(2017), 그리고 미술관 유리벽면 24m를 장식한 LED패널 작업 <People>(2017) 등의 신작도 선보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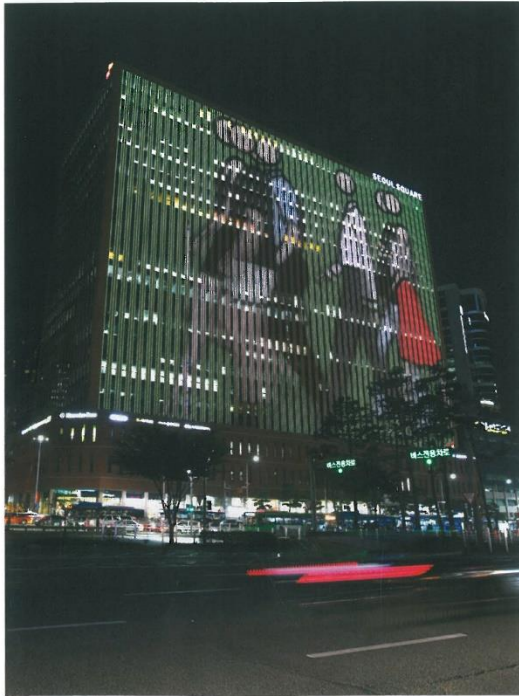
전시 동선을 따라 전시장을 거닐어 보자. 1전시실에는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의 두상작업이 있다. 입체로 인물의 머리를 스캔하고 이렇게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3D프린터로 출력한 후 컬러를 입혔다. 초상작업은 미술의 시작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졌던 작업으로 이러한 오래된 작업방식이 최신킨술을 만나 태초와 지금의 시간을 결합하려는 개념을 드러낸다. 오피는 초상화 작업에 대해 “나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람을 그린 방식과 사용한 재료 기법을 계속 관찰해왔다. 모든 것은 기호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기호들은 서로 합쳐져서 문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우리가 주변 세상을 보는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는데 대상을 관찰하는 태도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물의 이미지가 작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존재감을 꼽았다. 최신킨 기술을 응용해 만든 작업이 가장 단순화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바로 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일견 단순한 기호의 집합체로 보이지만 대단히 복잡한 인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쉽게 기록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2전시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보행을 주제로 한 작품이 모아져 있다. 걷거나 뛰는 이들의 모습은 줄리안 오피가 평면 혹은 영상작업에 즐겨 표현한 바, 이번엔 평면작업과 벽면 설치, 조각작업 등을 선보였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줄리안 오피 특유의 간략한 기호, 즉 픽토그램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만나 전달력이 극대화된다. 극단적인 평면성이



화성행궁 광장에서 바라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유리 파사드에 설치된 작업 <People, 2017>이 보인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 파사드에 설치된 (Walking people)(2009) 벽면 LED 크기가 가로 99m, 세로 78m에 이르는 대형 설치작업이다

강조되는 그의 작업은 원색의 색채와 검은 윤곽선이 더해지는데 미니멀과 팝아트의 융합 혹은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본다'는 행위를 넘어선 집요한 '관찰'에 근거한 것으로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서 수많은 자료를 모은 뒤, 그중에서 "최선의 재현을 부여해줄 정지된 순간을 선정하는 일"을 거친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 런던, 멜버른 등에서 거리를 걷는 이들을 관찰하고 재현한 작업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 내용에 대해 줄리안 오퍼는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전시장에서는 높이 8m에 이르는 작품 <Tower>가 소개됐는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공간 특성에 맞춰 제작한 작품으로 그 자체로 미술관 건축을 소재로 했다.

한 층 위로 올라가 만나는 4전시장에는 마치 양떼를 기르는 농장의 고즈넉함을 연상시키는 작업을 선보였다. 양떼 조각품 5점과 그 주위를 둘러싼 풍경을 단순화한

작업 <평원>, <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시장을 하나의 세트처럼 활용한 이 작업에서 작품이 펼쳐지는 공간에 대한 작가의 깊은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풍경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것으로 색채와 형태는 최대한 평면성을 강조하며 이뤄졌으며, 관람객이 전시장을 걷는 행위와 결합해 시간각차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는 우리가 전시장이 아닌 작업의 배경 장소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한다.

건너편 5전시장은 4전시장의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공간으로 줄리안 오퍼는 관람객에게 "여행을 다니는 기분을 느끼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풍경들, 즉 "한 페의 새들", "뚝이치는 파도", "지나가는 보트 한 척" 등이 평면작업과 영상기기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그가 영향받았다는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나 중국 전통 화권(畫卷·가로로 된 두루말이 그림)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움직임 표현하는 작가만의 방식이라 하겠다. 전시장에선 독특하게도 실랑대는 바람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작가가 관람객에게 경험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장치로 마치 4D영화관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전시장 말미에는 일종의 미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쇼핑몰, 공중화장실, 공항과 같은 실용적인 공공건축 공간에서 착안"했다는 이곳은 전시장을 일종의 무대화하고, 관람객이 공간과 설치물 사이로 지나가도록 유도해 작업으로서 완성시키고 있다. 줄리안 오퍼는 이곳을 "걸을 수 있는 회화공간"이라고 했는데 벽에 걸린 풍경 속으로 들어가보고 싶은 관람객의 마음을 읽은 것 같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미술관 유리 파사드에 설치된 LED작업은 그의 대표적 이미지인 보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입금의 임시거처였던 화성행궁 앞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작업은 마치 광장을 지나는 이들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줄리안 오퍼를 시장에서 성공한 윌슨은 작가로 볼 수도 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하나까. 하지만 인류가 2만여 년에 이르는 세월을 지내면서 형태를 단순화해 본질에 접근하려는 사고와 인식을 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본다면 줄리안 오퍼의 작업은 '본질은 단순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인류 역사의 압축된 보고서와도 같은 것이라. ●